

시연 施連칼럼

아버지의 벼루와 먹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운공파회장

벼루는 재질이나 형태, 지명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다.

단계석(端溪石)으로 만들어지면 단계연(端溪砚)이다. 석질(石質)이 좋은 단계연(端溪砚)은 벼루 바다에 떨어진 물방울이 사흘간 마르지 않아서 선비들로부터 애절한 사랑을 받았다.

운월연은 구름 사이를 비집고 용이 승천하는 모습이며 장생연은 십장생(十長生)이 부조돼 있다.

참외연은 줄기와 잎 새 사이로 참외 형태의 벼루 바닥이 만들어졌으니 실제 참외를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

벼루에 부조된 조각은 그 시대 최고 경지에 오른 조각가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작품이어서 작품 가치로서도 단연 으뜸이다.

옛 선비들은 좋은 벼루를 보면 집을 팔아서라도 내 것으로 만든다.

햇빛이 밝은 창 아래서 벼루에 먹을 갈면 방안에 퍼진 먹 향의 황홀감을 최고의 맛으로 여겼고 인격을 수양하는 길로 여겼다. 끼니 걱정을 놓지 못하는 선비들마저 이런 명품 벼루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낮밤을 가숨에 품었지만 부인으로부터 갖은 구박을 받았다.

조선시대(朝鮮時代)를 살은 선비들이 애지중지 했던 벼루는 자신의 학문이 집대성된 마지막 시점에서 가장 뛰어난 벼루를 선택한다고 하니 학문의 깊이와 명품 벼루를 탐하는 정신적(精神的) 사유가 같다고나 할까. 여기에서 글씨에 대해서만 한수 위라고 뽐내는 중국인들조차 천하의 보배로 여기는 족제비 꼬리털로 만든 조선의 남미(狼尾) 필을 가지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고 했다.

이순(耳順)을 넘기면서부터 유독 흰 구름 따라 고향(故鄕) 길을 유독 걷고 싶어졌다. 60대 중반을 넘어 서니 또 하나 그리워지는 것이 있어서니 먹(墨)향이었다. 어떤 때는 글씨를 쓰는 것보다 먹 향을 맡는 것이 더 좋아서 실에 머무르고 먹물에다가 코를 갖다 대면 머릿속을 들락거렸던 삶의 번뇌를 잘나(刹那) 간에 녹여 주었던 게 먹 향이다.

1970년대 초다. 해외여행(海外旅行)이 힘들었던 단수여권 시절 우연 찰개 들린 일본 나라 동대사 부근 필방에서 4백년, 14대를 잊고 있다는 고혹적인 문구에 이끌려 고매원(古梅園) 먹을 당시로서는 큰돈이라 할 10만원을 주고 몇 개를 샀다.

이 먹을 고희(古稀)에도 붓을 놓지 않으셨던 아버지 서안(書案)에 슬그머니 올려놓았다. 효도한번 제대로 못한 내 마음이 들릴 것 같아서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까지 그 먹을 아끼신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다.

고매원 먹에는 사향(麝香)뿐 아니라 용뇌향(龍腦香)을 넣었다는 설이 있었다. 두 향 모두 정신을 맑게 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기(氣)가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하고 먹색이 곱다.

용뇌향은 먹맛을 너무 많이 들이마셔 속이 거북해진 고래가 반쯤 소화되다 말은 음식물을 토해버리자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해물이 미네랄을 머금고 응어리져 수백 년의 세월을 지니면서 만들어졌다. 이런 재료로 만들어지면 묵향(墨香)은 일품이 되고 오육십 년이 지나도 글씨에서 먹 향이 날 만큼 먹을 잘 만들어졌다.

마음의 평온은 어디서 오는가.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건너오는 경박한 대답은 피곤하다. 세상사 다 가지려는 탐욕은 못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 엉덩이를 한곳에 두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오지랄 넓은 사람도, 나 없으면 세상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편치 못하다.

마음을 놓친 삶은 허깨비 인생을 사는 거나 다름없다. 우물쭈물하다가 세월만 보내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먹 향을 맡고 정신을 차려 본다.

먹색은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죽간도 썩고 천년을 간다는 한지도 공기 속으로 산화되나 오직 먹갈씨만은 남는다. 먹의 원 밀천은 소나무나 오동 씨앗으로 짠 기름, 또 옷나무를 태울 때 나온 그늘음으로 만들어진다.

고매원의 그 먹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한참이 지난 어느 해 여름날 유품을 정리하다 벼루 옆에 놓인 것을 발견하고 나는 한참이나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벼루와 연적(硯滴) 사이에 둔 이 먹을 아끼고 쓰신 마음을 그때서야 알았다.

(자료출처 海隱詩集)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31>



권관현 편집위원장

<하당집>은 공조정랑(工曹正郎)을 거쳐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를 받은 권두인(權斗寅, 1643~1719) 공의 시문집(詩文集)으로 원집(原集) 8권, 속집(續集) 2권, 총 10권5책이다.

공은 안동권씨 25세(世)로 북야공파이다. 자(字)는 춘경(春卿), 호(號)는 하당(荷塘)·설창(雪窓)이다. 공의 부친은 영릉참봉(英陵參奉)을 지낸 권목(權穆, 1614~1771) 공이다.

공은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의 문인으로 1677년 35세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다. 1681년 39세에 연천(漣川)으로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을 찾아가 반년을 머물기도 하였다. 1689년 47세에 석담(石潭) 권대운(權大運, 1612~1699), 남곡(南谷) 권해(權海, 1639~1704) 등의 천거로 효릉참봉(孝陵參奉)이 되었으며 같은 해 3월에 권대운의 천거로 6품직 장원사별제(掌苑署別提)가 되었다. 잇달아 사복시 주부, 공조좌랑에 제수되었다. 1690년 48세에 공조좌랑에 부임하고, 여름에 동궁사어(東宮司禦)로 세자책봉례(世子冊封禮)에 참여하고, 가을에 전의현감(全義縣監)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691년 49세에 공조정랑을 거쳐 사직서령(社稷署令)이 되고, 이어 안음현감(安陰縣監)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으며, 겨울에 다시 공조정랑이 되었다가 얼마 뒤 벼슬을 버리고 돌아왔다. 1692년 50세에 공조정랑을 거쳐 영춘현감(永春縣監)이 되고, 1708년 66세에 장수현감(長水縣監)이 되었다. 사후에 봉화(奉化)의 백록사(柏鹿祠)에 제향되었다.

공의 시문(詩文)은 1753년에 높은(訥隱) 이광정(李光庭, 1674~1756)이 쓴 시문에 의하면, 이광정이 먼저 11권으로 공의 유문을 편차(編次)하였으며, 공의 아들 권필(權苾, 1684~1767) 등과 삼종질(三從姪) 권만(權萬, 1688~1749)의 거듭된 요청으로 다시 산삭(刪削)하여 정리하였는데 이것이 현재의 원집(原集) 8권이다.

그 후 남야(南野) 박순경(朴孫慶, 1713~1782)이 원집에서 누락된 시문(詩文) 및 다시 찾아 모은 유문(遺文) 등을 교정하여 속집(續集) 2권으로 편집하였다. 1810년에 공의 아우 권두춘(權斗春)의 5대손인 권재덕(權載德, 1782~1829)이 원집 8권과 속집 2권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원집의 권1~2는 부(賦) 2편, 시(詩) 140여 수, 소(疏) 2편이다. 권3은 서(書) 7편, 잡저(雜著) 9편이다. 권4는 잡저(雜著) 1편, 서(序) 6편, 기(記) 12편이다. 권5는 제발(題跋) 8편, 상량문(上樑文) 2편, 축문(祝文) 15편, 제문(祭文) 15편이다. 권6은 예사(哀辭) 2편, 구묘문(丘墓文) 11편이다. 권7~8은 행장(行狀) 9편이다.

속집(續集)은 권두에 목록이 실려 있고, 권1에 시(詩) 20수, 서(書) 5편, 기유(紀遊) 1편, 제발(題跋) 1편, 축문(祝文) 1편, 유서(遺書) 1편, 구묘문(丘墓文) 4편, 행장(行狀) 1편, 서(序) 1편이 실려 있다. 권2는 부

하당집(荷塘集)

목으로 저자에 대한 묘도문자들이 실려 있다. 권미에 1810년에 김한동(金翰東)이 지은 발문이 있다.

다음은 공의 문집 제4권에 실려 있는 <유곡기(酉谷記)>이다.

내성현(乃城縣)은 안동부(安東府)에서 100리(里) 되는 곳에 있으며 현(縣)의 북쪽에 유곡(酉谷·달실)마을이 있으니 현과의 거리가 3리가량 된다. 유곡(酉谷)의 산세는 세 줄기로 그 한 줄기는 문수산(文殊山) 가운데서 나와 구불구불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다가 30리 되는 곳에 이르러서 멈추어 북쪽 산이 되었다.

또 한 줄기는 오른쪽으로 돌아 문수산과의 거리가 역시 30리인데 멀리 달려와 마을 입구에 이르러 멈추어 서쪽 산이 되었다. 또 한 줄기는 문수산에서 나와 남쪽으로 굴러 갈방산(葛芳山)이 되었는데 이 갈방산에서 나오는 한 가지가 40여리를 구불구불 가다가 꺾어 북쪽으로 4.5리에서 조금 굴러 서쪽으로 가다가 고을의 동쪽에 이르러 홀로 서서 높다란 봉우리를 이루어 멀리 높은 하늘을 굽어보고는 산이 여기서부터 점점 낮아져 약간 남쪽으로 수백(數百) 걸음을 내려가면서 평탄해져 소현(小峴 : 작은 고개)을 이루었다가 갑자기 솟아올라 가로로 걸쳐져 남쪽 산이 되었다가 역시 고을 입구에 이르러 멈춘다.

오른쪽에서 오는 산과 서로 만나 마을을 빙 둘러 감싸고 겨앉아 호위(護衛)하니 마치 옷깃을 여미고 있는 모습과 같다. 그 가운데가 넓고 평탄하고 네모반듯하며 널찍하게 여유가 있고 땅이 비옥(肥沃)하여 온갖 곡식을 농사짓기에 알맞다.

원쪽과 오른쪽에는 작은 시냇물이 들판을 끼고 산을 따라 졸졸 흘러내려가며 고리처럼 구부러지고 맑고 알개 흐르다가 마을 입구에 이르러 모였다가 마을 입구 바깥으로 흘러나간다. 또한 서쪽 산 바깥에서 오는 물과 합하여 삼계(三溪)가 되는데, 삼계는 산을 둘러싸고 남쪽으로 흘러가 용담(龍潭)에 이르러 끝나며 그 가운데에서 큰 들판을 이룬다.

통틀어 말하면 소백산(小白山)이 서쪽에 있고 풍락산(豐樂山)이 동쪽으로 마주하며 학가산(鶴駕山)이 남쪽에 가로놓여있다. 이 세 산이 높은 하늘 아득한 바깥에서 솟았다 나타났다 하니 그 형세가 마치 유곡을 보고 두 손을 마타잡고 인사하고 있는듯하다. 유곡이 비록 좁아서 작으나 그 형세는 멀리 끌어와 단단히 거머쥐고 있으며 산골짜기는 아름답고 그윽하



여 정말로 은자(隱者)가 머물만한 곳이다.

처음으로 우리 선조 충정공(忠定公: 沖齋 權楨, 1478~1548)께서 안동부 북쪽의 도촌리(都村里: 道村里)에서 이곳으로 이가(移家)하셨으니 지금부터 160여 년 전이다. 자손이 모두 유곡의 산 경에서 살아 집 울타리가 서로 이어져있다. 동쪽은 홍씨(洪氏) 집안이니 역시 우리 선조의 외손(外孫)이다.

오래전부터 80여 칸이 되는 커다란 집이 있었는데 담장이 둘러져있고 담장 안에는 뽕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배나무 등이 많이 있었다. 무오년[1678]에 동쪽에 나아가 종가(宗家)를 새로 지었다. 그 내용이 <종가신창기(宗家新創記)>에 자세히 나와 있다. 구택(舊宅)에는 지금 대청(大廳)과 남무(廊廡)가 있는데 이를 경장각(鏡牆閣)이라 한다. 이 경장각은 제사를 받들고 종족(宗族)이 모이는 곳으로 쓰이고 있다. 경장각의 오른쪽에는 사당(祠堂)이 있으니 이는 지형(地形)을 따른 것이다. <중략(中略)>

어! 세상에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은 자가 드물다. 나의 선조는 안동인(安東人)이다. 상제(上世) 때부터 대대로 안동에 살았는데 지금에 이르도록 안동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살았으며 또 5세(五世)가 되었으니 안동은 정말로 나의 고향이다. 나는 이곳에서 나고 이곳에서 자라고 이곳에서 늙어 선영(先塋)이 눈만 들면 보이고 친척이 담장을 이어 살고 있다. 내가 이곳을 버리고 장차 어디로 가겠는가? 나는 장차 이곳에서 삶을 마치고 만복할 것이다.

<유곡기(酉谷記)>의 국역(國譯)에서 <중략(中略)> 부분은, 유곡마을 서북쪽의 제사동(齋舍洞: 齋舍洞), 동쪽의 사막동(沙幕洞: 사그막골), 그리고 북쪽의 송생동(松生洞)에 하당공 집안의 여러 묘소가 있다는 내용으로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하당공은 <유곡기(酉谷記)>의 끝부분에서 “내가 이곳을 버리고 장차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하여 달실 사랑하는 마음을 한껏 드러내었다.

이로부터 340년이 흐른 뒤, 달실문중에서는 충재공(沖齋公)의 달실 입향(入鄕) 500주년을 맞아 2022년 10월 8일에 <충재공번생선생입향오백주년기념비(沖齋權楨先生入鄕五百周年紀念碑)>를 마을 입구에 높다랗게 세우고 종택 뜰에서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좌운공파 추향 봉행

안동권씨 좌운공파는 11월 26일 안동 연원(燕院) 세전에서 후손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시조 좌운공, 추밀공 정랑공 문과공 영가군 문화시중공 문정공 현령공 추향을 파록, 분정, 음복례까지 전통 제례의식대로 봉행했다.

초헌관 권오엽(權五曄), 아헌관 권혁무(權赫武), 종헌관 권태명(權泰明), 대축 권오중(權五宗), 집례 권용호(權容浩)으로 분정하여 헌작했다.

권오신 좌운공파회장



사정공 추향제 봉행

사정공(司正公, 韓諱 수해壽海 1410~1466) 추향이 11월 22일 오전 10시 100여 명의 후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집례의 장황에 따라 추향이 봉행됐다.

이날 초헌관 권용진(權容珍, 종손), 아헌 권혁식(權赫植), 종헌 권태현(權泰賢), 대축 권영진(權榮珍), 집례는 권용환(權容煥) 후손이 맡았으며 권혁조(權赫照) 봉산제 위원장과 권혁웅(權赫雄) 사무국장의 완벽한 준비로 이날 오전 10시 파록, 분정에 이어 추향, 음복례까지 전통의식대로 3시간 만에 끝났으며 이에 앞서 사정공 족보 수단 추진과정을 보고하고 후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권오신 좌운공파회장



추밀공파 정헌공계 오헌공 종중 시조 묘소 참배

추밀공파 정헌공계(正獻公系) 오헌공 종중(梧軒公宗中) 권운학 회장 등 회원 50여 명은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종친의 친목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먼저 일행은 27일 11시 30분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시조 태사공 묘소를 참배하고 정성을 다해 제례를 올렸다.

권운학 회장은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은 본래 김형(金幸)으로 신라성씨(新羅姓氏)인 김씨(金氏)의 후손이었다. 그러나 견훤과 고려 태조 왕건이 병산에서 치열하게 전투할 때 병기달권(炳幾達權)의 지략으로 왕건을 도와 혁혁한 공을 세워 고려의 개국공신으로 안동권씨(安東權氏)를 사성(賜姓) 받았다.

또한 병산전투의 승리로 왕건은 고창군을 안동부(安東府)로 승격시키고 시조 태사공에게 삼한백상삼중대공(三韓百上三重大功臣)에 책봉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시조 태사공은 안동의 본관으로 하는 안동권씨의 시조가 되면서 안동 고을의 실제 영주(領主)가 되어 이를 그 자손이 세습하게 되었다고 역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우리 오헌공 종중 후손들은 시조님의 역사를 바로 알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운학 회장은 우리 후손들은 시조와 선조들에 대해 숭조정신(崇祖精神)을 함양하고 종중의 발전과 종친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후손된 도리이므로 이렇게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런 기

회로 후손끼리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되어 앞으로 오헌공 종중의 많은 종원들이 종중 행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권길행 오헌공 종중 사무국장